

수박 두 줄기 부분 방임 재배기술

결순 따는 수고 덜어 노동시간 단축

농진청, 재배기술 확대 보급 위한 현장 평가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수박 재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수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박 두 줄기 부분 방임 재배기술(두 줄기 방임 재배 기술)' 현장 평가회를 오늘 고창에서 연다.

이번 평가회는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농업인 등이 참석해 수박 두 줄기 부분 방임 재배 실증시험의 결과를 공유하고,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수박 줄기 3개 중 1줄기에는 수박 열매가 달리고, 2개 줄기는 광합성으로 열매에 영양을 공급한다. 이때 수박 열매가 달린 줄기에 영양이 집중되도록 나머지 2개 줄기 결순을 잘라내야 한다.

농가에서는 1주당 약 100개의 결순을 제거하는 많은 작업량 때문에 일손 부담이 컸다.

이번에 보급하는 두 줄기 방임 재배 기술은 수박 줄기를 2개만 만든 후 1

줄기는 열매가 달리게 하고, 나머지 1 줄기는 결순을 따지 않고 그대로 자라게 두면서(방임) 광합성을 하도록 하는 재배방법이다.

연구진이 현장 실증에 참여한 농업인의 작업 시간을 기록한 결과, 두 줄기 방임 재배를 했을 때 평균 노동시간은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순 제거 작업을 생략함으로써 수박에 생기는 상처를 방지 할 수 있고, 충분한 잎을 확보해 수박의 일소(햇볕 데임) 현상을 예방할 수 있었다.

농진청이 지난 2011년에 소개한 두 줄기 방임 재배기술은 최근 수박 재배

농가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을 보완한 후 품질 평가 자료를 정리해 재배기술 설명서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은희 기술지원과장은 "수박 결순 제거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과 온열 스트레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며,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두 줄기 방임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 LH전북지역본부는 17일 사옥 광장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점빵장터'를 개최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점빵장터'

LH전북본부, 코로나19 극복 동참 위한 꾸러미 행사도 동시에 열려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17일 사옥 광장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점빵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LH전북본부와 사회적경제 플랫폼 내 입주기업인 JB스토어365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개최한 '사회적경제 점빵장터'는 약 30여개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한 '점빵장터'와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방문고객을 위한 '사랑의 1천원 나눔밥상', 전북수공예협동조합 등이 참여한 '수공예체험'과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나눔밥상의 수익금 전액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LH전북본부와 JB스토어는 코로나19 여파로 식자재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등을 지원하고, 지

역 내 소의 이웃에게 안심먹거리를 전달함으로써 범국민적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꾸러미' 행사도 동시에 개최해, 전북도가 추천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약 100가구에 꾸러미가 전달될 예정이다.

한옥마을협동조합, 전주농부협동조합, 세미푸드 등 약 30여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한 점빵장터에는 다양한 농·특산물 및 생활용품 등이 전시, 판매됐다.

JB스토어365 사회적협동조합 오준자 대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과 지역 내 소의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LH와 함께 마련했다"며 "LH전북본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점빵장터'를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업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 협약 후 사옥 내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조성하고, JB스토어 365, 나눔가게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 LH전북본부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 방안을 전북도 및 지자체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창호 LH전북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소통 및 나눔 문화를 전파하고자 JB스토어365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추진"했다면서, "자립과 세상을 이어가는 행복터전 with LH라는 LH의 사회적가치 비전아래 영구임대단지 내 공사가 등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등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 발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폐렴구균 예방접종하면 중이염도 예방 가능

건협 전북지부,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놓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17일 전했다.

건협 전북지부 임균섭 진료과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은 "폐렴구균은 환자와의 직접접촉, 기침, 재채기 등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어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당뇨, 심장 질환, 폐 질환, 간 질환 등의 만성질환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폐렴을 비롯한 균혈증, 수막염 등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증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백결합백신(13가)과 다당질백신(23가)을 모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및 균혈증,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의 하나로,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은 영아 및 어린 소아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성인에서는 폐렴이 가장 흔하고

소아에서는 급성 중이염, 부비염, 폐렴 및 균혈증 등이 흔히 나타난다.

폐렴구균에 의한 다양한 감염증은 예방접종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폐렴구균 백신에는 단백결합백신(13가)과 다당질백신(23가)이 있고, 2~59개월 소아와 65세 이상 성인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국가건강검진(일반검진, 암검진)을 비롯한 종합건강검진, 맞춤형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22일(월)부터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도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AI 활용기술 · 빅데이터 교류

전북은행-인라이플, 업무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6일 챗봇 전문 솔루션 업체인 인라이플과 전북은행 본점 9층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고객 응대 서비스 개발과 빅데이터 교류를 통한 데이터 플랫폼

영역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라이플은 자체개발한 AI엔진 'LUCY'로 AI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업체로, 자체 인공지능 분석 기술 및 빅데이터 보유를 통해 챗봇을 매개로 비대면 채널 상담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가 떠오르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비대면 채널에 대한 기술 협업으로 전북은행만의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JB전북은행의 언택트 금융 경쟁력과 인라이플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AD Tech 등 첨단 디지털 신기술의 기술력 등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제

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사는 중장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공동 협업체(TFT)'를 신설해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디지털 기술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자체개발한 AI엔진 'LUCY'로 AI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업체로, 자체 인공지능 분석 기술 및 빅데이터 보유를 통해 챗봇을 매개로 비대면 채널 상담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가 떠오르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비대면 채널에 대한 기술 협업으로 전북은행만의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JB전북은행의 언택트 금융 경쟁력과 인라이플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AD Tech 등 첨단 디지털 신기술의 기술력 등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제

/김윤상 기자

도내 '백년가게'

4곳 신규 선정

전북중기청, 일력

장미칼국수 등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올해 우수 소상공인 4곳을 '백년가게'로 신규 선정해, 도내의 백년가게가 모두 31곳으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4개 신규업체는 음식업 2곳과 도매업 2곳으로, 일력(정음시), 장미칼국수(군산시), 대한체육사(익산시), 화산축산(전주시) 등이다.

신규 선정업체 중 '일력'은 정음에서 30년 간 운영하며 주메뉴인 메밀국수와 생선초밥으로 건강하고 서민적인 음식판매를 1세대 창업주의 영입 철학을 계승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곳이다.

'장미칼국수'는 2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 칼국수 전문점으로 매일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특히 이곳 칼국수와 함께 결집이 또한 따로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대한체육사'는 스포츠용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100여 평의 매장에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전산화된 상품관리와 전문적인 애프터서비스로 46년 동안 한결같은 영업으로 소비자와의 신뢰가 두터운 익산의 명물이다.

마지막으로 화산축산은 전주에서 자리잡아 38년 동안 '내 아이들이 먹는 식육처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창업자의 뜻을 이어 받아 위생적인 식육제품 가공기술 확보하는 등 끊임 없는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다.

전북지방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백년가게의 성공비결은 오랜 업력의 노하우와 경영철학을 지키며, 고객의 입장에서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는 힘"이라며 "이들이 백년이상 존속해 성공경영의 비결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 1차 심사 선정 아이디어

대상 '국민 투표' 실시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다.

LX는 16일부터 25일까지 LX 혁신 & 사회적 가치 UP, 특목한 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로 선정된 24개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국민투표는 LX 홈페이지(www.lx.or.kr)내 '국민소통플랫폼' 하위메뉴인 '국민제안'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좋아요' 버튼을 눌러 아이디어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결과는 'LX국민참여혁신단'의 평가를 거쳐 6월 29일에 발표하며, 국민투표점수는 득표비율에 따라 40% 반영된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우수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내 수출기업 실적 부진 해소

도-경진원,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전북도 기업지원과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도내 수출기업의 실적 부진과 침체를 해소하고 수출지원 플랫폼의 다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과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수출상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 오는 25일 '2020 위기대응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러시아 9개 바이어, 전북 도내 3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다.

상담회에 앞서 참여 업체들의 현지 상황과 생생한 정보에 대한 감정을 해소해주고 러시아 파트너사 전영수 대표(RUS ECONOMIC LLC.)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시장 수출 전략 설명회'를 6월 19일에 진행하고자 한다.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상담회 참여 노하우, 러시아 시장 현황, 바이어 발굴, 제품선정, 마케팅 방법 등을 전달할 예정이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체들의 궁금증과 현지 정보에 대한 감정을 해소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시장진입의 기회로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

다변화를 강조하면서 '언택트 세일즈'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비대면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수출상담회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사업화 같은 밸류체인 연결프로그램 론칭을 통해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진원은 코로나19와 맞물린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의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바이어 대면 상담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통상거점센터(중국, 베트남, 인도 등)와 해외 현지 파트너사(30개국 50개소)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매 주 목요일마다 진행 중이며 현재 7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한편 7월에 진행될 온라인 화상 상담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jbta.kr)와 전북도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jtrade.jonbuk.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전화(063-711-2045)로 문의하면 된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화(063-711-20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빈집문제 해결 나섰다

전기안전공사-국토정보공사 혁신 협업체체 구축 워크숍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직무대행 최규성, 이하 LX)가 빈집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회의실에서 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혁신 협업체체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LX가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공사의 점검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공사에서 보유한 전국 2,300만호에 달하는 주택 등 일반용전기설비 점검데이터는 빈집을 추정하는 데이터로 활용된다. 전기설비 점검결과 전제(전력 폐지) 고액이나 누설전류(세어나오는 전류) 값이 0인 고객을 추출해 빈집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LX는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전기·수도 사용량 등의 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공사의 점검데이터가 국토정보기본도에 더해져 보다 정확한 빈집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도 LX가 보유한 지리정보 데이터를 전기안전점검 업무에 적용, 점검대상 관리 등에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